

한화, 평창올림픽 입장권 1400장 구매

성공개최 기원... 고객·이웃들에 기증

한화그룹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스킨레이팅, 봅슬레이 종목 등을 포함해 1400여장의 입장권과 올림픽 기념품을 구매했다. 한화는 이 입장권을 고객과 이웃은 물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장교들에게 나눠 줄 예정이다.

한화는 4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에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이희범 위원장, ㈜한화 이태종 대표이사, 국내 거주 외국인 장교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300장에 대한 기증식을 열었다.

국방외교와 군사·한국어 교육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27개국 80여명의 외국인 장교들에게 입장권을 기증한 것이다.

이태종 대표는 "27개국에서 모인 외국인 장교 여러분과 가족분들께서 평창동계올림픽의



한화그룹이 4일 더플라자호텔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이희범 조직위원장, 외국인 장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기증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리카르도 에스코발 대령(페루), 이태종 (주)한화 대표, 이희범 위원장, 굴람 알리 중령(파키스탄), 김주호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바닛 하르틀고이 대령(몽골), 카즈벡 코소노브 중령(키르기스스탄). /한화그룹

소중한 경험을 친구, 가족, 지인들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당부했다.

한화는 또 구입한 입장권을 한화가 후원하

는 사회복지기관과 임직원들을 매칭(짝 짓기)해 함께 관람하게 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에게도 올림픽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metroseoul.co.kr

두울장학재단 여대생 103명에 장학금

두울장학재단은 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여대생 103명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의 여성 전문 장학재단인 두울장학재단은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 회장의 부인 박두을 여사의 유지를 기려 지난 2000년 1월 설립됐다.

박두을 여사의 유산을 중심으로 만팔인 이인희(사진) 한솔그룹 고문을 비롯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홍라희 삼성미술관 전 관장, CJ 손복남 고문 등 자녀들이 뜻을 모아 기금이 조성됐다.

설립 이후 매년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1학년 신입생 30명과 기존 장학생 73명 등 모두 103명이 대상에 포함됐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17년간 500여명의 장학생에게 약 85억 원을 지원했다"면서 "장학생 기수별 정기 모임, 워크숍,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미 기자



4일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은행 창립 119주년 기념식'에서 손태승 우리은행장(왼쪽 네번째)이 역대 은행장, 고객대표, 노조위원장, 사외이사들과 함께 기념떡 커팅식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손태승 행장 "노력·혁신 통해 미래금융 선도를"

우리은행 창립 119주년 기념식 개최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4일 서울 회현동 본점 강당에서 창립 119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전 직원이 소통과 화합해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자"고 밝혔다.

손 행장은 이날 창립기념사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을 통해 디지털, 글로벌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래 금융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창립기념식에는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오랜 기간 우리은행과 함께한 고객

과 15명의 역대은행장, 사외이사 및 직원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대한민국 금융의 뿌리 깊은 나무'라는 콘셉트로 우리은행 119년의 역사와 1등 종합금융그룹 도약을 위한 비전을 담은 기념영상 시청, 손태승 은행장의 창립기념사, 박필준 노조위원장과 최병오 비즈니스클럽 회장의 축사 등이 진행됐다. 특히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자는 다짐의 의미로 각 직급별 직원대표, 은행장, 노조위원장이 핸드 프린팅을 하는 세리모니도 실시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중진공 19~20일 태백4계 포럼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 리더십연수원이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간 진행되는 '태백4계(季) 포럼'에 참여할 중소기업 CEO를 16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태백4계 포럼은 태백 자연환경을 계절별로 4회에 걸쳐 비전 리더십, 열정 리더십, 성찰 리더십, 그리고 미래 목표 그리기 등과 자연체험을 연계하여 진행되는 CEO 리더십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은 CEO 비즈니스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기업경영 경험과 새로운 비즈니스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도 ▲리더십 강의 ▲태백산 천제단에서 성공기원 및 비전설계 ▲천년주목을 통해 배우는 지속생존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부동반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 특전으로 추가 1일 무료 숙박과 인근 체험지 할인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신점[神占] 운세

1월 5일 (음 11월 19일) | 힐링운세 (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후배로 인해 자신의 허물을 면할 수 있습니다. 60년생 사업은 소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72년생 마음이 매우 심란합니다. 84년생 음과 양이 화합하고 상하가 나란히 합니다.	 말 54년생 도움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66년생 누군가와 함께 할 동반자가 있어야 합니다. 78년생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줄 여건이 못됩니다. 90년생 평소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소 49년생 북쪽에 업무 중 두고 온 것이 있습니다. 61년생 대단한 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73년생 높은 분의 덕택으로 거래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85년생 귀하의 능력과 실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양 55년생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67년생 여행을 계획한다면 가지 마세요. 79년생 약간 불안정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91년생 진행하는 일에 크레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랑이 50년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용기를 잃어서는 안됩니다. 62년생 어려움이 닥치니 어찌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74년생 겸손하면 길합니다. 86년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원숭이 56년생 업무에 잔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68년생 문제 하나가 우연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80년생 사신 연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92년생 진득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토끼 51년생 어려움이 한번에 물러옵니다. 63년생 좋은 결과를 거두기는 어렵겠습니다. 75년생 인내심과 끈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87년생 분명히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닭 57년생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길하지 못합니다. 69년생 길한운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81년생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93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이라도 다음을 기약하세요.
 돼지 52년생 기다리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세요. 64년생 자신의 고집 대로 일을 처리하지 마세요. 76년생 원하는 수준만큼 일이 성취됩니다. 88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개 58년생 재능과 지식을 널리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70년생 실수를 취하는데 집중하세요. 82년생 운이 좋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94년생 집착으로 유쾌한 하루를 망칠수도 있습니다.
 뱀 53년생 오랜 고난 끝에 보람을 찾게 됩니다. 65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77년생 좋은 운을 만났으니 쉽게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89년생 어렵던 문제가 손쉽게 해결됩니다.	 돼지 59년생 금전, 이성문제, 모두 유리할 것입니다. 71년생 안정을 취하세요. 83년생 모든 것은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95년생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2								
9		3	2	5				4
5					9	6		1
			4	6	2			3
				5	1	3		9
8					1	3		7
3		4	9	7				8
1								

4								6
	8	7	9	6	4	2	5	
	1		4		8		2	
				7		3		
	3				5	6		8
	7	2	3	8	1	9	6	
9								

스도쿠 정답

7	9	5	8	2	4	6	1	3
2	8	1	5	3	7	9	6	4
6	4	3	2	1	9	5	8	7
9	5	2	7	6	8	1	4	3
1	8	7	9	6	5	3	2	4
3	7	4	9	8	6	5	1	2
8	7	2	9	5	3	1	6	4
5	6	7	8	1	9	2	3	4
2	4	8	6	5	9	1	7	3
1	5	2	7	3	8	9	6	4
7	9	6	1	8	2	4	5	3
6	8	1	9	2	5	7	4	3
5	7	9	1	4	6	2	8	3
4	2	8	6	7	5	1	9	3
1	5	2	7	9	6	4	8	3
9	6	4	2	8	1	5	7	3
8	1	7	5	3	1	9	6	2

문제 제공 = **보너스**

김상회의四季

막차에서 만난 따뜻한 배려

일을 보다가 시간이 늦어 지하철 막차를 탄 적이 있었다. 늦은 밤이었는데 고맙게도 그때까지 운행하는 지하철이 있었다. 막차여서 그랬는지 객차 안은 한산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있노라니 피곤 때문에 정신없이 졸음이 몰려왔다. 한참을 졸다 깨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지하철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어느 역에 정차를 했고 금방 가려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출발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왜 가지 않는 걸까 궁금함이 들었다. 궁금증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풀렸다.

지하철 문 앞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열린 객차 문으로 들려왔다. "막차입니다. 빨리 오세요. 열차 출발합니다." 누가 한밤중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하고 봤더니 역무원이었다. 조금 뒤에는 계단을 빠르게 뛰어오는 사람들이 보였다. 다른 노선을 타고 온 환승객들 중에 이 막차를 타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오는 중이었고 승무원들은 잠시 출발을 늦추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문 앞에 선 역원은 몇 번이나 크게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은 몇 명씩 급한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왔다. 그들이 모두 지하철에 타고 난 다음에 승무원들은 객차 문을 닫았다. 만약 지하철이 평소와 같은 시간에 문을 닫고 출발했다면 어땠을까. 다른 노선을 타고 온 사람들은 막차를 놓쳤을 것이다. 지하철이 멈춰있을 때는 잠시 짜증이 나려고 했었다. 몸은 피곤하고 시간이 늦었으니 빨리 집에 갔으면 하고 있는데 예상처럼 열차가 움직이지 않으니 마음까지 피곤했다.

그러나 왜 지하철이 조금 늦게 출발하는지 알고 난 뒤에는 오히려 작은 감동이 밀려왔다. 환승 승객의 교통 편의를 생각한 승무원들이 고맙웠다. 밤늦게 일을 마치고 피곤에 찌들어 귀가하는 사람들에게 배려가 물씬 느껴졌다. 사람은 역시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서로 도와주고 기대고 협력하며 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열차가 멈춰 있던 시간은 몇 분 정도였다. 길지 않은 시간동안 잠시의 불편함이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객차는 제법 사람들이 많아졌고 살짝 시끄러웠지만 그래도 기분은 감사함에 머물렀다. 졸음이 몰려오는 중에도 살짝 손을 맞잡고 기도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고 소리를 지르고 애쓰며 안내한 역무원들, 환승승객들이 막차를 탈 수 있게 기다려준 승무원들이 복을 받았으면 하는 기원을 올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